

만 2, 3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관계

김 은 정* · 황 인 주**

본 연구는 만2, 3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7곳의 교육기관에서 만2, 3세 영아 10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로 Barnett(1990)의 '놀이성 평정 척도', 방은영(2008)의 '음악적 성향 평정 척도', 황인주(2008)의 '음악관련 자발적 행동유형 목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요인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었으며,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영아 놀이성은 영아의 음악적 성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영아 놀이성은 자발적 음악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 주제어 :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 영아 음악성 발달

차 례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 3. 연구절차 | 4. 자료분석 |

III. 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연령, 성에 따른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
2.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상관관계
3.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에 대한 설명력
4. 영아 놀이성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

IV. 논의 및 결론

*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교신저자: zzonggo@bc.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성 취업의 확대, 가족 구조의 변화, 가정의 자녀수 감소 등으로 영아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에 대해 사랑과 보호 중심에서 교육기능 강화의 요구가 급증하고 영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등의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며 영아기 발달은 전 생애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아동교육연구부, 2004). 영아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조기술을 습득하며, 걷고 뛰어나고 작은 물체를 잡는 등 신체운동발달에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언어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고, 또래와의 관계가 시작되며, 감각 활동을 통한 인지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다중지능이론에서의 Gardner(1984)는 인간의 여러 가지 지능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지능은 음악적 지능이라고 하였으며 많은 연구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음악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Trehub & Hannon, 2006).

영아는 음악적 소리가 나는 물체에 관심을 갖고, 이전에 들었던 선율을 연주하는 목소리나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환경의 변화에 흥미를 가지고 반응한다(Radocy & Boyle, 2001). 4개월 된 영아는 박자와 템포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며(Radocy & Boyle, 2001), 9~11개월의 영아는 조 또는 음정의 크기에 변형을 준 구조에서 선율의 윤곽 변화를 변별할 수 있다(Trehub, Thorpe, & Morrongiello, 1987, 재인용, Radocy & Boyle, 2001). 즉 생후 1년 이하의 영아도 음색이나 박자, 음높이, 셈여림 등의 음악적 개념을 구분하며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세 정도의 영아는 주변의 음악적 환경에서 접한 연속적 음정으로 연결된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Radocy & Boyle, 2001). 2~3세 정도의 영아는 자발적 노래(spontaneous voice-play)를 만들어내는데 놀이를 하

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멜로디에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고 동물이나 자동차의 소리를 흉내 내는 등 다양하게 자발적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찰되었다(Young, 2003). 이와 같은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은 영아의 놀이가 활성화되고 영아가 놀이에 깊이 빠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음악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음악의 아름다움을 자연히 느끼게 되고, 기술이나 지식을 개인이 필요한 만큼 습득하게 되며, 자연히 지식과 기술행위의 변화가 오게 된다(이강숙, 1993). 영아기는 음악을 즐기며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로 자신이 아는 멜로디가 나오면 따라서 흥얼거리거나 음악소리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안경숙, 김소향(2006)은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음악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행동으로서 음악적 지식과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음악태도는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즉 영아의 음악성을 알기 위해서는 영아의 자발적인 음악적 표현과 태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영아의 음악적 행동과 태도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는데 놀이는 영아의 발달에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Johnson, Christie와 Yawkey(1999)는 놀이가 영아의 다양한 발달 상태를 나타내 주고, 행동기술과 개념 획득의 매체로 발달을 강화하며, 발달적 변화의 도구로서 유아 발달의 질적인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영아기에 있어서 놀이는 발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놀이는 영아가 내적 동기유발에 의해 자발성과 흥미를 갖고 주도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영아는 탐색과 놀이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이영자 외, 2001) 영아의 자발적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

영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정 성향을 놀이성이라고 하는데 Lieberman(1977)은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놀이성은 영아의 음악활동에서 쉽게 관찰된다.

영아에게 신체적 자발성은 영아의 흥미에 기초한 자발적인 감각경험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영아는 구체적인 감각경험을 통해 주변의 사물과 사건을 인식해 나가므로, 영아에게 직접 만지고 굴려보고 던져보고 다루어 볼 수 있는 물리적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악기를 탐색하는데 신체적 자발성의 특징을 보인다. 영아는 북과 같은 악기에 관심을 보이며 북채를 가지고 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리거나 소리 내어 보면서 탐색한다. 이와 같이 영아는 음악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놀이를 병행하게 된다. 신체적 기술을 얻게 되면서 음악적인 동작을 확장해 나가고 동작을 반복하면서 신체적 기술을 확장해 나가며 이러한 리드미컬한 동작은 음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Young, 2003). 영아는 악기연주,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만지고 흔들어보고 두드리보고 소리를 들어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신체적 자발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영아의 음악활동은 영아가 주도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만족감,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영아는 발달특성상 주 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아동교육연구부, 2004). 양육자나 교사는 영아와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영아를 위해 양육자는 영아와 함께 춤을 추거나 신체와 관련된 노래(‘코코코’, ‘머리, 어깨, 무릎, 발’)를 부르며 영아와 신체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활동을 통한 성인과 영아의 놀이는 영아가 성인과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또래와 같이 노래부르거나 악기연주하며 동작하는 경험을 촉진시켜 영아의 사회적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아는 적극적인 탐색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물의 물리적 속성과 실제적 사용방법을 파악하여 인식하며, 획득된 지식에 기초하여 놀이를 하고 사고를 확장하게 된다. 노래부르기를 통하여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으며, 악기를 탐색하면서 소리의 차이, 셈여림의 차이, 악기의 물리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된다. 영아에게 “고양이는 어떤 소리를 낼

까?”, “이 악기는 찰찰 소리가 나는구나.” 등의 상호작용으로 언어와 음악적 소리를 연결시킨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음악활동은 영아의 언어 발달과 인지적 자발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놀이의 특성에서 영아의 자발성과 즐거움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음악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표현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며 즐거움을 가지고 물건이나 상황에 대한 탐색한다. 남옥선(2007)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음악활동은 영아의 정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아는 악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소리내어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음정, 리듬, 빠르기, 음색의 측면에서 변화시켜 봄으로써 의도적으로 음악적 행위들을 이끌어 낸다. 음악의 성격에 따라 영아는 즐거움, 슬픔, 좌절감 또는 흥분을 느낄 수도 있고 위로감이나 이완된 느낌을 가지는 등 다양한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놀이에서 즐거움을 표현하게 된다.

놀이성과 영아의 제 발달영역과의 관계, 영아의 음악성과 제 발달영역과의 관계를 알아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성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이행숙, 한유진(2008)의 연구에서는 전통놀이에 나타난 어머니-영아간 신체적 상호작용을 소개하였으며 모형오(2006)의 연구는 가정에서의 영아음악을 위한 전래동요 및 동작을 소개하고 있다.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황인주(2008a)의 연구에 의하면 만 2세 영아의 음악성발달과 언어발달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김명순, 성지현(2002)의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의 놀이성과 언어와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혜경(2005)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놀이에서 나타난 영아의 언어를 분석하여 영아 놀이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영아의 언어발달은 음악성과 놀이성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남옥선, 2007), 음악활동이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이선영, 2005), 오르프 음악활동이 발달지체아동의 사회적 반응 및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임영옥, 조광순, 2007)와 같이 영아기에 음악과 사회·정서 발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민영, 손수민(2009)의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이 상관

관계가 있었다. 영아의 보육시설 적용은 보육시설에서의 성인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과 놀이성 및 음악성 발달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기 교육에 있어서 놀이와 음악은 분리될 수 없으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영아의 음악활동은 놀이를 통해 접근되어야 하며 영아의 놀이 활동 중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음악적 행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악기를 가지고 하는 음악놀이는 악기를 잡고 흔들며, 두드리고 소리를 냈다가 멈추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놀이를 하게 되며 이러한 영아 음악활동을 위한 풍부한 환경은 영아의 놀이를 촉진함으로써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Young, 2003). 놀이와 음악의 통합교육과정 구성의 효율성은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유은숙(2004)은 영아발달단계에 의한 놀이음악 중심의 영아 음악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숙진(2010)은 영아와 교사의 애착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음률활동을 통한 놀이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고창 지역의 영아음악을 연구한 모형오(2006)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영아양육에서 음악을 활용하여 양육자와 영아의 놀이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성, 특히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관계와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영아의 음악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 방안으로서 놀이와 음악활동 통합 교육과정 구성의 효율성과 필요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영아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연령, 성에 따른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가?

넷째, 영아 놀이성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7개소에 재원 중인 만 2세 영아 43명, 만 3세 영아 58명으로 총 101명이다. 만 2세 영아의 평균월령은 31.14개월, 만 3세 영아의 평균월령은 41.69개월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월령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영아의 평균월령

	남		여		총	
	N	평균월령	N	평균월령	N	평균월령
만 2세 영아	24	31.29	19	30.95	43	31.14
만 3세 영아	29	41.69	29	41.69	58	41.69
전체	53	36.98	48	37.44	101	36.89

2. 연구도구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놀이성

영아의 놀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Barnett(1990)의 놀이성 척도를 사용

하였다. Barnett의 검사도구는 Lieberman(1977)이 제시한 놀이성의 다섯 가지 범주에 기초하여 신체적 자발성 4문항, 사회적 자발성 5문항, 인지적 자발성 4문항, 즐거움의 표현 5문항, 유머감각 5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영아의 담임교사에 의해 5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95이고 놀이성 하위범주별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아 놀이성 검사의 하위 범주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변 인	하위 범주	문항 번호	신뢰도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 영아의 동작이 잘 협응된다. · 놀이하는 동안 영아는 신체적으로 능동적이다. · 영아는 보다 능동적인 것을 선호한다. · 영아는 달리기, 한 발 뛰기, 경충 뛰기, 도약을 많이 한다.	.87
	사회적 자발성	· 영아는 타인의 접근에 쉽게 반응한다. · 영아는 타인과의 놀이를 제안한다. · 영아는 다른 영아와 협동적으로 놀이한다. · 영아는 놀잇감을 흔쾌히 공유한다. · 영아는 놀이 시 지도자 역할을 한다.	.79
	인지적 자발성	· 영아는 스스로 게임을 창안한다. · 영아는 놀이에서 비전형적인 놀잇감을 사용한다. · 영아는 여러 가지 배열을 가장한다. ·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활동을 변화시킨다.	.89
	즐거움의 표현	·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즐거움을 표현한다. ·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충만함을 나타낸다. ·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열정을 보인다. ·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감정을 표현한다. · 영아는 놀이하면서 노래하고 말을 한다.	.89
	유머감각	· 영아는 다른 영아들과 농담을 즐긴다. · 영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놀린다. ·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 한다. · 영아는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웃는다. · 영아는 주변에서 익살부리는 것을 좋아한다.	.82
전체		1~23	.95

2) 음악적 성향

영아의 음악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은영(2008)이 개발한 ‘유아 음악적 성향’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음악적 성향 검사도구는 음악적 흥미 5문항, 음악적 유능 7문항, 음악적 가치 3문항, 음악적 의지 6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도구는 유아의 음악적 성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므로 영아의 음악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 담당 교사 3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영아의 음악적 발달 특성에 부합하게 문장을 수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영아의 담임교사에 의해 5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97이고 음악적 성향의 하위범주별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아 음악적 성향 검사의 하위 범주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변인	하위 범주	문항 번호	신뢰도
음악적 성향	음악적 흥미	· 음악활동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즐거워하는가? · 새로운 음악 교수자료와 방법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가? · 음악활동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가? · 노래부르기와 신체표현 외에 다른 방법(즉흥 신체표현, 악기연주, 음악감상, 그림 그리기 등)을 사용하여 음악 표현하기를 좋아하는가? · 음악활동 시 주어진 과제에 흥미를 가지고 일단 시도해 보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92
	음악적 유능	· 음악활동 시 머뭇거림이 없이 친구들 앞에서 여러 가지 표현방식으로 잘 표현하는가? · 음악활동의 전개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을 자신감 있게 말하는가? · 노래부르기, 신체표현하기, 악기다루기, 음악창작하기 등을 유창하게 잘하는가? · 음악의 요소들을 잘 변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표현하는가?(음악의 요소: 리듬, 박자, 음높이, 음색, 셈여림, 빠르기, 멜로디, 화음 등) · 음악활동 시에 교사와 또래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많은가? · 또래의 음악표현을 감상하고 관심을 보이는가? · 음악활동 시 교사의 설명 및 활동수행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유능하게 반응하는가?	.94

변 인 하위 범주	문항 번호	신뢰도
음악적 가치	· 음악에 대해 행복감을 표현하는가? · 음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영아 자신을 즐겁게 한다고 이야기 하는가? · 음악활동에서 자신이 느낀 즐거움을 또래와 함께 공유하기를 좋아하는가?	.87
음악적 의지	· 음악활동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주 표현하고 수용되기를 바라는가? · 자기주도적으로 음악활동에 필요한 재료(악기 및 소품)를 선택하는가? · 자신의 음악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한대로 활동을 잘 수행하는가? · 자신이 음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음악적 표현이 미숙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 음악활동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마무리를 잘 하는가? · 차후 음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을 보이는가?	.92
전체	1~21	.97

3) 자발적 음악행동

자발적 음악행동이란 영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내는 동안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음악관련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인주(2008b)의 ‘영아의 음악관련 자발적 행동유형’ 목록을 사용하였으며 음악행동의 분류 기준은 표 4와 같다. 영아의 음악행동을 관찰해보면 노래부르거나 악기연주 할 때, 혹은 움직이기를 할 때 명확히 음악적인 행동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발성을 하거나 악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전(pre-) 음악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움직이기에 있어서도 특별히 음악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동작을 하게 된다. Young(2003)은 이 시기 영아들의 리듬을 포함한 동작은 춤 같기도 하고 음악 같기도 하여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며 영아들은 행동과 움직임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동작을 연습하고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영아의 언어발

달에 있어 쿠잉(cooing)이나 웅알이(babbling)를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어습득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도기, 즉 언어이전단계(prelinguistic phase)로 보고 언어발달을 위한 중요한 전(pre-)단계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아가 동작을 되풀이 하여 패턴을 만드는 영아의 행동은 특별히 음악적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음악적인 동작하기를 위한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아의 음악적 행동 중 명확히 음악적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음악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태, 즉 ‘전(pre) 음악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자발적 발성’, ‘악기관심’, ‘전(pre-)음악적 움직임’을 영아의 음악행동유형에 포함시켰다.

자발적 음악행동과 빈도의 관찰은 영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내는 동안 나타나는 음악과 관련된 자발적 행동유형 빈도를 10초 간격의 시간표집법으로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가 등원하는 9시부터 관찰을 시작하여 낮잠시간을 제외하고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의 유형과 빈도를 관찰하였다. 한 영아 당 총 관찰횟수는 150회이며 총 관찰시간은 1,500초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73이었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94이었다.

<표 4> 자발적 음악행동 목록

표현행동		개념	유형
노래 부르 기	자발적 발성	영아가 목소리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내는 행동	동작을 하면서 흥얼거리기
			인형을 출추게 하면서 흥얼거리기
			놀이를 하면서 장난감의 소리 만들기(뽕뽕, 링~~)
			소리나 단어의 일정 부분을 계속 반복하여 소리내기
악기 다 루기	자발적 노래	영아가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동	노래 부르기
			노래 가사를 부분 혹은 전부 바꾸어 부르기
	악기 관심	직접적인 소리 탐색 및 연주는 아니지만 악기에 관심을 보임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다니기
			악기를 가지고 상상놀이 하기
악기 다 루기	소리 및 악기 탐색과 연주	주변사물과 악기의 소리를 탐색하고 연주하는 행동	교실의 사물을 가지고 소리 탐색하기
			악기 소리 탐색하기
			노래하면서 악기 연주하기

표현행동		개념	유형
움직이기	전(pre) 음악적 움직임	음악적이지는 않지만 음악적인 움직이기를 위한 전 단계	음악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행동을 4번 이상 반복하여 동작의 패턴을 만들 때 동작을 위한 소품을 가지고 음악적이지 않은 동작을 할 때
	음악적 움직임 (dance-like, music-like)	음악이나 리듬에 반응하여 리듬이나 동작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동작	춤추는 듯한 동작 음악적 요소(소리, 음색, 박, 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높이, 멜로디, 화음)에 맞추어 움직이는 듯한 동작(손뼉치기, 발구르기, 고개 끄덕이기, 흔들기, 무게중심 옮기기) * 음악을 들으면서 동작할 때는 듣기와 중복체크 * 동작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때는 노래부르기와 중복체크
듣기	듣기만 일어나는 경우		손유희하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듣기 다른 사람의 연주 듣기
	듣기가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녹음기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노래부르기나 악기연주, 동작표현 * 대부분 다른 행동과 중복으로 체크됨
기타	음악행동과 관련 없는 행동		음악관련 행동을 제외한 행동

3. 연구절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를 허락한 7개소를 선정하여 영아담당 교사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영아의 음악관련 행동을 관찰하였다.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1명 당 담당학급의 영아의 남아 3명, 여아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 평정을 부탁하였다. 자발적 음악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학급을 방문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영아를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제외하고 자발적 음악행동의 유형과 빈도를 관찰하였다. 관찰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원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자에 의해 총 2회에 걸쳐 자발적 음악행동의 분류기준, 시간표집법의 방법, 관찰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으며 세 연구보조원의 관찰 일치도는 .9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for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분석에서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여 영아의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2의 분석에서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과 4의 분석에서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연령, 성에 따른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

영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연령별 차이를 알아본 *t*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별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변 인	하위 범주	2세 영아 (N=43)	3세 영아 (N=58)	전체 영아 (N=101)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14.88(3.31)	15.36(3.35)	15.15(3.33)	-.71
	사회적 자발성	16.41(4.20)	15.65(3.61)	15.98(3.87)	.98
	인지적 자발성	12.46(3.75)	12.89(3.60)	12.71(3.65)	-.58
	즐거움의 표현	19.90(3.15)	19.60(3.05)	19.73(3.08)	.49
	유머감각	15.58(4.22)	16.12(3.92)	15.89(4.04)	-.66
	전체	79.25(15.98)	79.63(14.88)	79.47(15.28)	-.12

변인	하위 범주	2세 영아 (N=43)	3세 영아 (N=58)	전체 영아 (N=101)	t
		M (SD)	M (SD)	M (SD)	
음악적 성향	음악적 흥미	19.76(3.53)	18.44(3.73)	19.01(3.69)	1.79
	음악적 유능	21.84(6.46)	21.91(5.34)	21.87(5.81)	-.08
	음악적 가치	10.27(3.18)	10.43(2.37)	10.36(2.73)	-.27
	음악적 의지	19.11(5.58)	18.27(4.68)	18.68(5.07)	.82
	전체	70.97(16.64)	69.06(14.55)	69.88(15.43)	.61
자발적 음악 행동	자발적 발생	5.14(6.28)	6.93(7.51)	6.17(7.04)	-1.26
	자발적 노래	3.33(4.38)	6.69(4.14)	5.26(4.54)	-3.93***
	악기관심	1.05(1.91)	.79(1.77)	.90(1.83)	.68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	2.86(3.00)	.43(1.08)	1.47(2.43)	5.69***
	전음악적 움직이기	3.67(4.91)	5.45(8.69)	4.69(7.35)	-1.20
	음악적 움직이기	6.00(3.73)	5.21(4.33)	5.54(4.09)	.96
	듣기	4.77(5.93)	.53(.98)	2.34(4.44)	5.35***
	듣기가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6.91(7.04)	3.17(3.40)	4.76(5.56)	3.52***
	전체	33.72(19.85)	29.20(21.05)	31.12(20.57)	1.09

*** $p < .001$

표 5와 같이 영아 놀이성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115점 만점에서 만2세 영아 79.25(15.398), 만 3세 영아 79.63(14.88)로 만 3세 영아가 약간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놀이성 하위범주별 연령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영아의 음악적 성향 평균점수(표준편차)는 총 105점 만점에서 만 2세 영아 70.97(16.64), 만 3세 영아 69.06(14.55)로 만 2세 영아가 약간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악적 성향 하위범주별 연령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발적 음악행동의 빈도(표준편차)는 만 2세 영아 33.72(19.36), 만 3세 영아 29.20(21.05)로 만 2세 영아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범주 중 자발적 노래는 만 2세 영아 3.33(4.38), 만 3세 영아 6.69(4.14)로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3$, $p<.001$). 영아의 자발적 노래는 2세 영아보다 3세 영아에게 더 많이 관찰되었다.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는 만 2세 영아 2.86(3.00), 만 3세 영아 .43(1.08)로 만 2세 영아의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가 유의하게 많았다($t=5.69$, $p<.001$). 듣기는 만 2세 영아 4.77(5.93), 만 3세 영아 .53(.98)로 만 2세 영아의 듣기가 유의하게 많았으며($t=5.35$, $p<.001$), 듣기가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만 2세 영아 6.91(7.04), 만 3세 영아 3.17(3.40)로 만 2세 영아가 유의하게 많았다($t=3.52$, $p<.001$).

영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별 차이를 알아본 t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증 결과

변인	하위 변인	남 (N=53)	여 (N=48)	전체 아동 (N=101)	t
		M (SD)	M (SD)	M (SD)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15.20(3.31)	15.10(3.38)	15.15(3.33)	.15
	사회적 자발성	15.86(4.12)	16.10(3.61)	15.98(3.87)	-.30
	인지적 자발성	12.54(3.53)	12.89(3.81)	12.71(3.65)	-.47
	즐거움의 표현	19.47(3.24)	20.02(2.90)	19.73(3.08)	-.89
	유머감각	15.90(4.13)	15.87(3.99)	15.89(4.04)	.03
	전체	79.00(15.42)	80.00(15.27)	79.42(15.28)	-.32
음악적 성향	음악적 흥미	17.96(3.49)	20.16(3.52)	19.00(3.69)	-3.12**
	음악적 유능	21.67(5.98)	22.08(5.69)	21.87(5.81)	-.34
	음악적 가치	9.90(2.87)	10.87(2.51)	10.36(2.73)	-1.79
	음악적 의지	17.73(4.96)	19.62(5.06)	18.63(5.07)	-1.89
	전체	67.28(15.28)	72.75(14.86)	69.88(15.48)	-1.79
자발적 음악 행동	자발적 발성	7.87(7.32)	4.29(6.25)	6.17(7.04)	2.62**
	자발적 노래	5.11(4.06)	5.42(5.06)	5.26(4.54)	-.33
	악기관심	1.02(1.93)	.77(1.73)	.90(1.83)	.67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	1.53(2.49)	1.40(2.39)	1.47(2.43)	.27

변인	하위 변인	남 (N=53)	여 (N=48)	전체 아동 (N=101)	t
		M (SD)	M (SD)	M (SD)	
	전음악적 움직이기	4.55(6.55)	4.85(8.20)	4.69(7.35)	-.21
	음악적 움직이기	4.95(3.70)	6.17(4.43)	5.54(4.09)	-1.46
	듣기	2.79(4.84)	1.83(3.95)	2.34(4.44)	1.08
	듣기가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4.21(5.22)	5.38(5.90)	4.76(5.56)	-1.05
	전체	32.05(18.96)	30.10(22.37)	31.12(20.57)	.47

** $p < .01$,

표 6과 같이 영아 놀이성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남자 영아 79.00(15.42), 여자 영아 80.00(15.2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성 하위범주에서도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음악적 성향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남자 영아 67.26(15.28), 여자 영아 72.75(14.86)로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악적 성향의 하위범주 중 음악적 흥미는 남자 영아 17.96(3.49), 여자 영아 20.16(3.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12$, $p < .01$).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남자 영아 32.05(18.96), 여자 영아 30.10(22.3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발적 발성은 남자 영아 7.87(7.32), 여자 영아 4.29(6.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t = 2.62$, $p < .01$).

2.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상관관계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상관관계

	놀이성				음악적 성향				음악관련 행동			
	신체적·사회적·자발적	인지적·자발적	즐거움의 표현	유미 감각	놀이 전체	음악 흥미	음악 지각	음악 위치	자발적·전체	자발적·발성	자발적·연주	소리 및 악기탐색·음적·악기
신체적·자발적	1											
사회적·자발적	.675***	1										
인지적·자발적	.680***	.731***	1									
즐거움의 표현	.640***	.562***	.669***	1								
유미감각	.644***	.530***	.703***	.612***	1							
전체	.851***	.845***	.894***	.806***	.846***	1						
음악적·흥미	.620***	.530***	.582***	.579***	.551***	.704***	1					
음악적·유능	.728***	.930***	.914***	.657***	.703***	.923***	.530***	1				
음악적·가치	.683***	.642***	.643***	.672***	.690***	.786***	.671***	.687***	1			
음악적·의지	.734***	.709***	.768***	.702***	.745***	.862***	.722***	.736***	.810***	1		
전체	.785***	.833***	.851***	.760***	.766***	.942***	.818***	.902***	.863***	.946***	1	
자발적·발성	.237	.165	.285	.302	.282	.277	.059	.226	.141	.111	.161	1
자발적·노래	.253	.208	.203	.230	.279	.276	.049	.244	.212	.141	.187	.202
악기관심	.108	.259	.247	.066	.094	.193	.117	.264	.145	.177	.211	.065
자발적·소리 및 악기탐색·연주	.107	.114	.035	.033	.050	.080	.173	.079	.127	.136	-.162	-.214
음악·전통음악·음악이기	.209	.110	.219	.222	.211	.227	.107	.181	.166	.127	.165	.718
음악·악기·음악이기	.181	-.026	.031	.139	-.028	.061	.208	-.005	-.001	.011	.051	.044
듣기	-.129	-.011	-.083	.018	-.136	-.083	-.029	-.041	-.111	-.062	-.062	-.131
다른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124	.088	.094	.165	-.007	.106	.246	.085	.027	.057	.115	.280
전체	.275***	.197	.260	.287	.211	.296	.202	.242	.165	.149	.218	.708
									.515***	.166	.066	.757
										.500***	.282***	.700***

* $p < .05$, ** $p < .01$, *** $p < .001$

표 7과 같이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r=.942, p<.001$), 놀이성과 자발적 음악행동($r=.286, p<.01$),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r=.218, p<.05$)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먼저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의 하위 범주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은 음악적 성향의 음악적 흥미($r=.620, p<.001$), 음악적 유능($r=.728, p<.001$), 음악적 가치($r=.683, p<.001$), 음악적 의지($r=.734,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놀이성의 사회적 자발성과 음악적 성향의 음악적 흥미($r=.580, p<.001$), 음악적 유능($r=.920, p<.001$), 음악적 가치($r=.642, p<.001$), 음악적 의지($r=.709,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놀이성의 인지적 자발성은 음악적 성향의 음악적 흥미($r=.582, p<.001$), 음악적 유능($r=.914, p<.001$), 음악적 가치($r=.643, p<.001$), 음악적 의지($r=.768,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 놀이성의 즐거움의 표현은 음악적 성향의 음악적 흥미($r=.679, p<.001$), 음악적 유능($r=.657, p<.001$), 음악적 가치($r=.672, p<.001$), 음악적 의지($r=.702,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 놀이성의 유머감각은 음악적 성향의 음악적 흥미($r=.551, p<.001$), 음악적 유능($r=.703, p<.001$), 음악적 가치($r=.699, p<.001$), 음악적 의지($r=.745,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로 놀이성의 하위범주와 음악적 성향의 하위범주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놀이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86, p<.01$) 하위 범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275, p<.01$), 자발적 발성($r=.237, p<.05$), 자발적 노래($r=.253, p<.05$), 전음악적 움직임($r=.209, p<.05$)간의 정적인 상관관계, 사회적 자발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197, p<.05$), 자발적 노래($r=.208, p<.05$), 악기관심($r=.259, p<.01$)간의 정적인 상관관계, 인지적 자발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260, p<.01$), 자발적 발성($r=.285, p<.01$), 자발적 노래($r=.203, p<.05$), 악기관심($r=.247, p<.05$), 전음악적 움직임($r=.219, p<.05$)간의 정적인 상관관계, 즐거움의 표현과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287, p<.01$), 자발적 발성($r=.202, p<.05$), 자발적 노래($r=.230, p<.05$), 전음악적 움직임($r=.222, p<.05$)간의 상관관계, 유

머감각과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221, p<.05$), 자발적 발성($r=.282, p<.01$), 자발적 노래($r=.279, p<.01$), 전음악적 움직임($r=.211, p<.05$)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놀이성 전체와 자발적 음악행동 하위 범주간의 상관관계는 자발적 발성($r=.277, p<.01$), 자발적 노래($r=.276, p<.01$), 전음악적 움직임($r=.227, p<.05$)로 놀이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218, p<.05$). 음악적 성향의 하위 범주와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 범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음악적 성향의 음악적 흥미와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202, p<.05$), 듣기가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r=.246, p<.05$)간의 정적인 상관관계, 음악적 유능과 자발적 음악행동 전체($r=.242, p<.05$), 자발적 발성($r=.228, p<.05$), 자발적 노래($r=.244, p<.05$), 악기관심($r=.264, p<.01$)간의 정적인 상관관계, 음악적 가치와 음악적 의지는 자발적 음악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음악적 성향 전체와 자발적 음악행동 중 악기관심($r=.211, p<.05$)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 범주 간에는 부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에 대한 설명력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단순회귀분석 결과 영아의 놀이성은 영아의 음악적 성향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F(1, 99)=779.82, p<.001$), 설명력은 88.6%이었다. 이와 같이 영아의 놀이성은 영아의 음악적 성향을 매우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영아의 놀이성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영아의 음악적 성향의 매우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영아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에 대한 설명력

모형	B	β	R	F	R^2	조정된 R^2
(상수)	-5.70					
놀이성	.95	.94***	.94	779.82***	.887	.886

*** $p < .001$

4. 영아 놀이성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

영아 놀이성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영아 놀이성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

모형	B	β	R	F	R^2	조정된 R^2
(상수)	.55					
놀이성	.39	.29***	.29	8.81**	.082	.072

** $p < .01$

표 9와 같이 단순회귀분석 결과 영아의 놀이성은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F(1, 99) = 8.81, p < .01$), 설명력은 7.2%이었다. 이와 같이 영아의 놀이성은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영아의 놀이성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 자발적 음악행동의 관계를 알

아보고 놀이성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에서는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발적 음악행동의 경우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하위범주는 자발적 노래,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 듣기, 듣기가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었다. 자발적 노래의 경우 만 3세 영아가 만 2세 영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영아는 36개월이 되면 언어를 통한 성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된다(Menyuk & Brisk, 2005). 자발적 노래 부르기는 ‘가사’를 사용하여 노래 부르는 빈도를 관찰한 것으로 이와 같이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 영아의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 듣기의 경우 만 2세 영아가 만 3세 영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어린 연령의 영아의 경우 더욱 악기연주에 관심이 많으며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듣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하여 영아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놀이성은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음악적 성향의 경우 음악적 성향의 하위범주인 음악적 흥미에서 여자영아가 남자영아보다 높았다.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범주인 자발적 발성에서 남자영아가 여자영아보다 음악적 발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발성(spontaneous vocalization)은 영아가 목소리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만 2~3세 영아의 경우 자연스러운 발성, 읊조리기, 아는 노래를 재구성하기, 동작을 하면서 노래하기, 동물이나 다른 사물의 소리 흉내내기, 실제소리를 흉내내기로 나타난다(Young, 2002). 자발적 발성을 통한 음악활동은 영아로 하여금 음악활동에 잘 참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영아의 음악성발달을 잘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Young, 2003). 자발적 발성의 경우 남자영아가 여자영아 보다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영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노래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실험

하는 행동인 자발적 발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발적 발성을 통해 남자영아의 음악활동을 지도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놀이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중 자발적 발성, 자발적 노래, 전음악적 움직이기로 영아가 목소리와 신체를 이용하는 음악활동이 놀이성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부르기는 영아가 특별한 훈련이나 기술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심성경 외, 2003), 영아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놀이를 하면서 자발적 발성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영아의 기분이나 상태를 잘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듣기에 있어서 영아는 음악이 들리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보통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며 즉흥적으로 움직인다(Young, 2003). 신체를 이용하는 음악활동은 영아의 발달단계 상 적절한 음악활동 방법이면서 영아의 놀이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행숙, 한유진, 2008; Young,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영아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몇몇 하위범주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악적 성향은 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영아가 음악활동에서 보이는 음악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행동의 경향성을 말한다(방은영, 2008). 자발적 음악행동은 영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이는 음악관련 행동으로 영아의 음악적 표현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은 영아의 음악성발달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음악성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능력과 태도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의 음악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음악적 능력과 태도를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와(이경미, 2009; 정혜선, 2007; 정혜영, 2006; 최선미, 2010), 영아의 음악적성과 태도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황인주, 2008c)와 같이 영아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경음악을 자주 들려주고 자발적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며 영아가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여 자발적 음악행동이 많이 일어나도록 음악활동과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영아의 음악능력과 태도를 포함한 음악성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아의 놀이성은 예측변인으로서 음악적 성향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놀이성은 영아의 음악적 성향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놀이성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자발적이며,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감각의 특성을 의미한다(Lieberman, 1977). 특히, 놀이성에서 중요한 특성은 외적 지시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본능적으로 동기화된 것(행동특성)이라는 점이다(Weisler & McCall, 1976; Lieberman, 1977). 이는 곧 놀이가 영아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놀이는 영아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주도적, 능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다(Hutt, Tyler, Hutt, & Christopherson, 1989). 그렇기 때문에 놀이성은 영아가 자발적으로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음악적 흥미), 자신감 있게 악기를 다루고(음악적 유능), 음악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음악적 가치), 아이디어, 기대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음악적 의지)하는 등 음악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놀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하였듯이(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영아의 발달과 학습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음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놀이성은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원동력이 되어, 놀이성이 높게 나타나는 영아는 자발적 흥미와 욕구에 따라 음악에 적극적으로 관심보이고 음악적 탐색을 활발히 하는 의지를 가지는 음악적 성향도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이성의 특성을 강조한 활동 즉, 영아가 자발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음악활동을 제공한다면 영아의 음악적 성향 발달에도 많은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영아의 놀이성은 자발적 음악 행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에서 자발성은 영아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능

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다(Hutt, Tyler, Hutt, & Christopherson, 1989). 선행연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통해 영아의 놀이성이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해 예측변인으로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것이다. 영아가 놀이성향에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자발성이 높고 즐거움과 유머감각의 표현이 많으면, 영아가 즐거움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발적 음악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놀이성이 높은 영아는 악기를 만지고 악기의 소리를 시험하고 신체의 힘과 소리를 연관지어보고, 노래를 부르거나 자발적 발성을 통해 소리 실험을 하며, 음악적 듣기의 행동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놀이는 영아의 발달과 학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영아 발달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이다(Bredenkamp & Copple, 1997). 놀이가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교육적 매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놀이중심의 음악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의미 있는 경험의 통합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므로 영아의 자발적 흥미를 유발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경험으로서의 놀이(Bredenkamp & Rosegrant, 1995; Katz & Chard, 1989)를 교육적 경험으로 연결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이와 같이 영아의 음악성발달을 위해서는 영아 주도의 의미 있는 놀이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영아 놀이성의 전반적인 특성과 음악적 성향 및 자발적 음악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영아의 음악성발달과 관련 변인, 특히 놀이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의 연령별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에서는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발적 음악행동의 하위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 녀 영아가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놀이성의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음악적 성향의 경우 음악적 성향의 하위범주인 음악적 흥미에서 여자영아가 남자영아보다 높았다. 어

린 연령의 영아일 경우 자발적 음악행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듣기(감상하기)와 관련된 행동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어린 영아일수록 배경음악의 사용, 다양한 악기 구비, 신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소품의 제공 등 좀 더 음악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자영아의 경우 자발적 음악행동 중 자발적 발성이 여자영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따라서 남자 영아는 놀이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발적 발성을 활용한 음악활동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아의 놀이성,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 놀이성과 자발적 음악행동,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성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영아의 음악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영아의 놀이를 이용한 교수방법임을 제시하였다. 놀이가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한 음악활동의 제공이 영아의 음악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함으로써 영아기 놀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셋째, 영아의 놀이성은 음악적 성향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놀이성은 예측변인으로서 영아의 음악적 성향과 자발적 음악행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영아 놀이성의 특징인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과 즐거움을 주는 음악활동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아의 자발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를 음악적 경험과 연결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아와 블록놀이를 하면서 간단한 노래나 찬트(chant)를 부르거나 영아의 이름을 부를 때 멜로디를 넣어 부르고 영아의 자발적 악기탐색을 격려하며 자유로운 동작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소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을 측정하는 검사는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은 관찰자가 단기간에 관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오랜 시간 영아와 같

이 지내면서 참여관찰을 한 교사의 평가가 단기간동안의 관찰자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각각 교사들이 평정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교사가 평정할 경우 각 교사마다 높은지 낮은지의 평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담당 학급의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학급 또는 다른 연령의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의 점수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따라서 평정척도(rating scale)검사도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향후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에 있어서 관찰에 의한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 검사에 보다 객관화 된 연구도구가 개발되어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의 행동은 매일의 건강이나 기분, 환경 변인에 따라 쉽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을 위한 장기적인 관찰을 실시한다면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아의 음악성과 놀이성과의 관계만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영아의 성별, 연령, 월령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 이외의 관련 변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의 가정환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영아의 음악성발달에 관한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명순, 성지현 (2002). 1세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관계. *아동학회지*, 23(5), 19-34.
- 김민영, 손수민 (2009).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보육시설 기관적응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65-89.
- 남옥선 (2007). 음악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 만 2세(25-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방은영 (2008). 유아 음악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모형오 (2006). 고창 영아음악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심성경, 이희자, 이선경, 김경의, 이효숙, 박주희 (2003). 유아음악교육. 경기: 양서원.
- 안경숙, 김소향 (2006). 유아의 음악적 태도와 음악적 행동, 음악적 개념에 대한 교사의 평가 실태 분석. 음악교육연구, 31, 63-87.
- 유은숙 (2004). 영아 음악교육 방법 연구 : 영아 발달단계에 의한 놀이 음악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강숙 (1993). 열린 음악의 세계. 서울: 현음사.
- 이경미 (2009). 국악교육에서 피아노 반주가 유아의 음악적 태도변화와 장단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이선영 (2005). 오디 음악 활동을 통한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과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관한 사례.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옥 (2001). 1, 2세 영아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서울: 다음세대.
- 이행숙, 한유진 (2008). 전통놀이에 나타난 어머니-영아간 신체적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9(3), 253-272.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아동교육연구부 (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임영옥, 조광순 (2007). 가족과 또래 상호작용 촉진 오르프 음악활동중심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영아의 사회적 반응 및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77-103.
- 정혜선 (2007). 가정환경변인과 유아교사변인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혜영 (2006). Carl Orff 교수법에 의한 전통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

- 적 태도와 리듬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조숙진 (2010). 영아-교사의 애착 증진을 위한 음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애착 증진 음률활동 프로그램.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조혜경 (2005). 영아의 상징놀이에 나타난 탈맥락화, 놀이주제, 각본조직, 자타관계, 언어기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9(4), 235-259.
- 최선미 (2010). 음악적 요소에 기초한 통합적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 개념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황인주 (2008a). 영아의 음악성발달과 언어발달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2(3), 153-174.
- 황인주 (2008b). 만2세 영아반에 적절한 음악경험이 음악적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인주 (2008c). 만2-3세 영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태도와의 관계. 이화음악논집, 12(1), 110-135.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and Culture*, 3(4), 322-324.
- Bredekamp, S., & Copple, C.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Bredekamp, S., & Rosegrant, T. (Eds.) (1995). *Reaching potentials: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sment* (Vol. 2).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Gardner, H. (1984). *Frames of mind: A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Masic Books.
- Hutt, S., Tyler, S., Hutt, C., & Christopherson, H. (1989). *Play, exploration and learning: A natural history of the preschool*.

- London: Routledge.
- Johnson, J. E., Christie, J. E., & Yawkey, T. D.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ew York: Longman.
- Katz, L. G., & Chard, S. C. (1989). *Engaging children's mind: The project approach*. Norwood, NJ: Ablex.
- Lieberman, J.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s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Menyuk, P., & Brisk, M. E. (2005). *Language development and education*. NY: Palgrave Macmillan.
- Radocy, R. E., & Boyle, J. B. (2001). 음악심리학(최병렬, 방금주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 1997 출판)
- Trehub, S. E., & Hannon, E. E. (2006). Infant music perception: Domain-general or domain-specific mechanism? *Cognition*, 100, 73-99.
- Trehub, S. E., Thorpe, L. A., & Morrongiello, B. A. (1987). Organizational processes in infants' perception of auditory patterns. *Child Development*, 58, 741-849.
- Young, S. (2002). Young children's spontaneous vocalization in free-play: Observations of two-to three-year-olds in a day-care setting. *Bulletin: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52, 43-53.
- Young, S. (2003). *Music with the under fours*. London: Routledge Falmer.
- Weisler, A., & McCall, R. B. (1976). Exploration and play: Resume and redir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1, 492-508.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Playfulness, Musical Attitude and Spontaneous Music Behaviors of Infants

Kim, Eun-Jung · Hwang, I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fants' playfulness, musical attitude, and spontaneous music behavio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01 infants who were two-to-three years old and enrolled at 7 Child Care Center in Seoul and Kyonggi-do. In order to examine the infants' playfulness and musicality, Barnett's (1990) 'The questionnaires about playfulness', Bang's (2008) 'The questionnaires about musical attitude', and Hwang's (2008) 'The behavior styles and frequencies during spontaneous music play' were used. The results were: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factors of spontaneous music behaviors between two and three year old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in sub-factors of musical attitude and spontaneous music behaviors. (2) A positive relationship was shown among playfulness, musical attitude, and spontaneous music behaviors. (3) Playfulness affected infants' musical attitude positively. (4) Playfulness affected infants' spontaneous music behaviors positively.

Key Words : Playfulness, Musical attitude, Spontaneous music behaviors, Musical development in infants

투고일: 2010년 3월 31일, 심사(수정), 5월 31일(6월 8일), 게재확정일: 6월 18일